교통섬 연내 개설…택시 등 대기 차량과 통과 차량 분리

광천사거리 체증 푼다

펜스 세우고 카메라 설치…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광주시내에서 교통혼잡이 가장 심각한 곳 가운데 하나인 광주시 서구 광천동 광천사거리 주변 교통이 개선된다.

광주시는 16일 "광천터미널 북측 가로변에 몰리는 택시·시내버스·마중객의 승용차 등과 무진로 통과차량의 동선을 분리하는 교통섬을 연내에 만들어 이 일대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4억5천600만원을 들여 무진로(광천터미널 북측 250m 구간)에 시내버스·택시·마중객 승용차의 동선을 일반 통행차량과 분리하는 교통섬을 설치한다.

시는 특히 이 구간에 불법주정차 카메라를 설치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이 경우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과 일반 통과차량이 3~4차선까지 얽히면서 유발됐던 극심한 교통체증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또 이마트 앞에 버스승강장을 만들어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광천터미널 남측에는 펜스를 설치해 불법 주정차를 막을 계획이다.

광주시의 조사결과 신세계백화점·광천터미널·이마트 등의 영향권인 광천사거리는 지난해 6월 이마트 개점 전에는 시간당 교통량(토요일 오후 6시~7시)이 1만214대였으나, 2개월 후인 8월에는 3.8% 증가한 1만611대로 늘었다. 이에 따라 광천사거리의 토요일 오후 6~7시 차량당 평균 지체 기간은 121.3초에서 10.4% 길어진 134.0초에 달했다.

광천터미널 북측(무진로)은 특히 택시 100~200대가 차로를 점유하고 있는데다, 마중객의 차량 30여대도 상시 주차하고 있어 차량통행을 3차로까지 막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우선 광천터미널 북측 한 차로를 교통섬으로 막아 마중 차량과 통과 차량의 동선을 분리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광천터미널 일대 통과차량 지체시간 〈자료:광주시〉

측정시점	교차로명	이마트개점전('06.6) 평균지체(초/대)	이마트개점후('06.8) 평균지체(초/대)	증감(초/대)	증가율(%)
토요일 오후 6~7시	광천사거리	121.3	134.0	+12.7	10.4
	화정삼익사거리	79.2	93.4	+14.2	17.9
	농성광장	77.4	84.2	+6.8	8.7
	광천오거리	90.2	104.3	+14.1	15.6
	터미널남측삼거리	52.4	103.5	+51.1	97.5
	금호월드앞 삼거리	65.3	92.4	+27.1	41.5

16일 오후 4시 광주시 서구 광천동 광천터미널 북측 가로변(무진로)에 친지들의 마중을 나온 차량과 버스, 승용차 등 통과차량이 얽혀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다. 광주시는 연내에 이 곳 250m구간에 마중 차량과 통과차량을 분리하는 교통섬을 만들어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 개설

남구청, 직장인 위한 '야간 클리닉'도

광주시 남구청은 16일 올해 직장인을 위한 '야간 금연 클리닉', 찾아가서 금연을 돕는 '이동 금연 클리닉'을 개설키로 했다.

야간 금연 클리닉은 17일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남구 주민건강증센터(650-8238)에서 운영한다.

이동 금연 클리닉은 관내 기관·단체, 기업 등의 요청에 따라 12월까지 연중 운영키로 했다. 남구청은 우선 22일 남부경찰서를 방문해 첫 이동 금연 클리닉을 연다.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에게도 찾아가서 금연을 돕는다.

22일부터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구청 민원실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도 금연 정보 등을 제공한다.

금연클리닉에서는 금연 요령을 교육하고 니코틴 패치·껌·캔디 등 금연 보조제를 무상으로 나눠준다. 폐 나이 측정 검사 등 금연성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한다. 중간 탈락자라도 재도전 할 수 있게 하고, 금연전화를 걸어 6개월 동안 금연성공을 독려하기도 한다.

남구의 20세 이상 흡연인구는 20세 이상 인구의 20.6%인 4만6천315명으로 추정된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 새얼굴 /

"환경보존과 개발 조화시킬 것"

박 희 정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환경보존과 개발은 서로 상충하는 이데올로기입니다. 하지만 두 가치를 적절히 조화시켜 광주·전남의 발전을 도우면서도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54·사진) 신임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16일 본보와 취임 인터뷰를 갖고 "영산강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유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상류에 위치한 장성댐 등 4개 농업용 댐의 여유수량을 갈수기때 영산강에 공급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 등과 협의,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청장은 또 전남도가 최근 영산강 하구둑 배수갑문 개방과 준설에 관한 타당성 용역을 의뢰한 것과 관련, "전남도가 영산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도는 물론 주민, 지자체와 함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영산강을 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전북 남원 출신인 박 청장은 전주교대와 한양대를 졸업했으며, 환경부 자연공원과장과 기획예산담당관·재정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06년부터는 환경부 상하수도국장으로 재임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남도학숙 입사생 모집

광주 180명·전남 150명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설립한 '남도학숙'이 2007년도 신규 입사생 을 선발한다. 모집인원은 광주 180명· 전남 150명 등 모두 330명이다.

입사자격은 보호자가 광주시 혹은 전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으로서 서울 소재 정규 4년제 대학교 신입생·재학생 또는 대학원생(석사과정)이다. 입사생은 학업성적 70%, 생활정도 30%를 반영해 뽑는다.

원서는 31일부터 2월 9일까지 교부하며, 2월 5일부터 9일까지 광주시청과 전남도청 민원실에서 각각 접수를 받는다.

문의 광주(613-2363)· 전남(061-286-3362).

/김주정기자 jjnews@

서구 2010년까지 5대권역 개발

상무지구 - 행경·경제·문화 타운
금호·풍암 - 쾌적한 웰빙 주거타운
화정·염주 - 생활 체육·레저 벨트
광천·농성 - 쇼핑·복합 뉴타운
유덕·서창 - 친환경 문화·교육단지

광주시 서구청은 16일 '행복서구건설 4개년 계획' 최종보고회를 갖고, 서구를 오는 2010년까지 5대 권역으로 나눠 개발하는 방안 등을 확정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광주시청과 한국은행 등 18개 공공기관이 자리 잡고 있는 상무지구는 '행정·경제·문화 중심타운'으로 육성된다. 치평동에는 연면적 2만4천685㎡·객실 200실 내외 규모의 특급호텔이 들어선다. 2월부터는 '24시간 업무지원 시스템'이 구축돼 각종 민원서류가 상시 발급되고, 은행·택배·의료 서비스 등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구 인구 30%가 밀집돼 있는 금호·풍암지구는 '쾌적한 웰빙 주거타운'으로 개발된다. 오는 2010년까지 금당산 산책로 등 12개 코스 45.8km를 정비하고, 풍암생활체육공원에는 그늘목과 다양한 꽃을 식재한다. 또 서구국민체육센터·빛고을국악전수관·서구문화센터 운영이 활성화된다. 풍암동 산 26번지에는 지하 1층·지상 2층(연면적 1천389㎡) 규모의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이 들어선다.

구도심이라 할 수 있는 화정·염주지구는 '생활체육·레저벨트'로 개발된다. 화정근린공원에는 어린이놀이터·청소년문화센터·생태연못 등이 조성된다. 올해 이전할 예정인 국군통합병원부지에는 공원과 어린이 테마파크가 건립된다.

양동·광천·농성지구의 테마는 '쇼핑·복합 뉴타운'이다. 광주시민들과 애환을 함께 했던 양동시장에는 현대적인 경영기법이 도입된다. 점포는 세련되게 변신하고, 아케이드와 냉·난방시설이 설치된다. 고객들은 인터넷을 통해 양동시장에 들어온 물품을 미리 알 수 있고, 신용카드 사용도 보다 편리해진다.

'친환경·문화·교육복합단지'를 표방한 유덕·서창지구에서는 지역 내 1천225농가를 친환경농가로 육성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국방부가 마륵동 공군탄약고를 이전하면, 부지에 문화복합단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전주언 서구청장은 "개발이 끝나는 오는 2010년 서구는 호남의 새로운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초대형 농수산물 유통센터 수완지구에 들어선다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에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기본으로 한 초대형 농수산물 유통센터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16일 "800억원을 들여 1만2천여평의 부지에 2층, 연면적 1만4천여평 규모의 농산물 종합유통센터를 내년말까지 준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가 전액 민자로 추진할 이 센터는 3월 부지매입과 설계를 거쳐 10월 착공할 계획이다.

이 유통센터는 당초 시가 2003년 남구 효천 역세권 부근에 추진했으나 인근에 농산물 도매시장이 들어선데다 사업 타당성 부족 등으로 무산됐다. 이후 광주지역 회원농협이 추진했으나 막대한 사업비 확보에 애로를 겪으면서 난항을 겪었다.

이 센터가 들어서면 광주·전남 농민들의 안정적인 판매망 확보, 도시민들의 저렴한 농산품 구입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생활안내

교통안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360-8114
철도안내	1544-7788
대한항공	222-2000
아시아나항공	221-6300
한국도로공사	1588-2505

상 담

●당직변호사(17일)	
기세운	233-8500
●법무사회 법률상담(17일)	
남종우	370-0600
●가정법률상담소	
보건복지협회성폭력상담소	671-4050
광주 YWCA	527-0011
●24시간 청소년상담	
국번없이	1388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청	1588-0060
●병무민원상담	
광주전남병무청	1588-9090
●소비자 상담	
광주 YMCA	232-6133
광주 YWCA	524-5400
주부교실	232-0643~4
녹색소비자문제연구	369-9881

신 고

●학교폭력	
국번없이	112
전남경찰청	226-0112
광주지검	233-2828
●사이버테러	(02)118
●가정폭력	
여성긴급 국번없이	1366
여자형사기동대	363-0155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광주아동학대예방센터	
국번없이	1391
●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	
국번없이	1389